

# 베트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7.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9
IV. 국제신인도 .....	11
V. 종합 의견 .....	13

## I. 일반개황

면적	331천 Km <sup>2</sup>	G D P	1,468억 달러(2012년)
인구	90.4백만명(2012년)	1 인 당 GDP	1,624달러(2012년)
정치체제	사회주의 공화제	통화단위	Dong(D)
대외정책	친서방 노선	환율(달러당)	20,858.9(2012년 평균)

- 베트남은 사회주의공화국이나 1986년 도이모이 정책 도입 이후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제개혁 및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전통적인 농업국이었으나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제조업부문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농업부문에서는 쌀(세계 2위 수출국) 이외에도 수출작물로 커피생산이 늘고 있으며, 석유 개발에 성공한 뒤로 원유 또한 수출하고 있음.
- 2010년 하반기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높은 인플레이션, 금융산업의 부실채권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베트남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하여 동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음. 정부의 신속한 정책대응으로 최근 거시경제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영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은행권의 부실채권 문제도 남아있으며 소비심리도 위축되어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 총리, 국가주석, 총서기 등 권력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정부패 척결, 국영기업 민영화, 외국인투자여건 개선, 금융기관 부실 해소 등을 위한 개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sup>f</sup>
경제성장률	5.3	6.8	5.9	5.1	5.2
재정수지/GDP	-7.2	-3.1	-3.2	-5.2	-4.0
소비자물가상승률	7.1	8.9	18.7	9.1	6.9

자료: IMF 및 EIU.

#### □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2012년과 유사한 성장세 시현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4분기 이후 주요 수출 대상국(미국, 일본 및 유럽)의 수입수요 위축으로 2009년도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5.3%를 시현하였으나, 2010년에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의 회복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6.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1년에는 고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정부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성장률이 5.9%로 다시 둔화되었으며, 2012년에도 소비심리 악화와 투자침체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된 5.1%를 기록함.
-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 환율 평가절하<sup>1)</sup> 등 경기부양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부실채권 문제로 인한 은행권의 소극적 대출 정책으로 투자 활성화 효과가 미약하여 2013년에는 전년과 유사한 5.2%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4.9%를 기록하였음. 제조업(건설 포함)과 서비스산업은 각각 5.2%, 5.9% 성장하였으나, 1차 산업의 성장률은 2.1%에 그침.

1)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 SBV)은 2013년 6월 28일부터 동화의 기준 환율을 달러당 20,828동에서 21,036동으로 조정하여 약 1% 평가절하함.

## □ 국제원자재 · 식료품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 전망

-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1%를 기록하였으나,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사회 인프라 및 복지 부문 재정 지출 증가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동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하면서 201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9%에 달하였음.
-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정책<sup>2)</sup>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격 상승과 대출 확대, 동화의 평가절하 지속으로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8.7%로 큰 폭 상승하였으나, 2012년에는 국제원자재와 소비재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1%를 기록함.
- 2013년 상반기중 보건, 교통, 교육분야 공공요금이 인상되었지만 국제 원자재와 식료품 가격 안정 및 소비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동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9%로 전년 대비 낮아질 전망이다.

## □ 세수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 감소 전망

- 베트남은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 인프라 및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출액 급증에 힘입어 재정 수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4~5%대를 유지해 왔음.
- 2009년 Dung Quat 정유공장 가동에 따른 원유 수출 급감, 경기부양을 위한 복지부문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7.2%까지 상승하였으나, 2010년에는 내수 시장 회복과 수출산업 호조로 정부 수입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3.1%로 하락하였음.
- 2011년에도 세수 증가 및 정부의 긴축 정책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3.2%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2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인프라와 복지 지출 확대로 동 비중이 5.2%로 상승함.
- 2013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명목 GDP 성장, 수출산업 성장세 지속 등에 따른 세수 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전년보다 감소한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2) 2011년 2월에 재대출금리(Refinancing Rate)를 연 9%에서 연 11%로 인상한 후, 네 차례에 걸쳐 각각 1%p 인상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관료주의로 행정 처리기간 장기화 및 비용 과다

- 외국인직접투자시 제도상의 투자허가기간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됨. 투자허가와 토지 사용계약, 공장 건축허가 등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실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많으며 진출 초기 예상보다 인허가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함.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3에 따르면 베트남의 기업경영여건 중 건설허가 부문은 전체 185개국 중 28위를 기록했으나, 사업개시 부문은 이보다 크게 낮은 108위를 기록함.
- 수입관세, 수입수량 제한, 소비세 부과, 수입허가제 등 무역제도 관련 규제가 있으며 수출입 관련 실무절차도 복잡한 편으로 평가되고 있음.

#### □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프라 수준은 144개국 중 95위에 해당되는데, 특히 도로(120위), 항만(113위), 전기공급(113위)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전국적 전력망이 형성되어 있으나 송전 및 배전망 부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력 손실, 전력 품질의 저하,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도로, 철도, 항만인프라 부족으로 운송시간 및 운송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함. 특히, 베트남 내 육상운송의 경우 전체 물동량의 65%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낙후된 장비 운행으로 인한 고장이 빈번하여 활용에 큰 어려움이 있음.

#### □ 지지부진한 국영기업 개혁

- 베트남 국영기업의 방만 경영에 따른 부실화가 베트남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특히, 베트남 국영기업의 은행소유 허용 및 은행간 교차지분보유 제도 등으로 인해 국영기업의 무분별한 비핵심산업 진출 재원이 대출을 통해 조달되면서 베트남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졌음.

- 베트남 중앙은행은 부실채권 비율이 2012년 6월말 8.6%, 9월말 8.8%에서 2013년 6%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발표하였음. 하지만 2013년 1월 Fitch는 국제기준 적용시 동 비율이 15~2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 점진적인 국영기업의 비핵심산업 자회사 매각, 상장기업에 준하는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영기업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음.
- 2006년부터 주식회사 전환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2012년 93개의 국영기업 민영화를 목표로 내세웠으나, 12개만이 민영화되었음.

## 나. 성장 잠재력

### □ 인구 규모, 소비계층 증가로 내수시장의 성장 전망

- 베트남은 약 9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4위의 인구대국으로, 2025년에는 약 1억 명의 인구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됨. 더욱이, 소비 성향이 높은 20~30대 인구가 2000년 26백만 명에서 2015년 33백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베트남에서는 신흥고소득층(vinavalet)과 젊은 소비자들의 과시성 고급제품 구매가 확산되고 있으며, 고성장에 따른 중산층 확대는 소비 시장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됨.
- 베트남 중산층(연소득 5천 달러 이상 3만5천 달러 이하)은 2009년 17백만 명에서 2020년 56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 경제활동인구 비중 지속 증가로 저임 노동력 풍부

-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총인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국민 기본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 남베트남 시절의 자본주의 영향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상대적으로 고숙련 노동자가 부족한 실정이나, 직업교육 및 전문 학교와 대학교에 공공재원을 대폭 투입하는 등 베트남 정부가 인력 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다. 정책성과

### □ 거시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신속한 대응

- 베트남 정부는 2008년 상반기 중 본격화된 경기 과열로 인한 불안 요인 해소를 위해 중앙은행 기준금리(Base rate)를 연 14%로 인상하였으며, 국내 통화량 흡수를 위한 13억 달러 규모의 금융증서 발행, 국영기업의 신규투자 전면 금지, 환율 변동폭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음.
- 강력한 긴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자 2008년 4분기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였음.
- 2011년 동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되자 베트남 중앙은행은 재대출금리를 2010년말 연 9%에서 연 15%까지 인상하였으며, 이후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자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재대출금리를 지속 인하하여 연 7%로 조정함.
  - 다만,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부실채권 문제로 대출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2013년 5월 기준 연간 대출증가율이 중앙은행의 목표인 12%에 크게 못 미치는 2.9%에 그침.

### □ 은행산업의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은행의 개입 지속

- 베트남 중앙은행이 M&A 등을 통한 은행 시스템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2015년까지 부실채권비율을 3.1%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은행간 M&A와 외국계 금융기관의 지분 인수가 이어지고 있음.
  - 중앙은행은 2011년에는 3개 상업은행<sup>3)</sup>, 2012년에는 2개 은행<sup>4)</sup>의 합병을 승인하였으며, 추가적 합병을 위한 은행간 협상<sup>5)</sup>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2011년 Mizuho 은행은 약 5.7억 달러를 투자하여 Vietcombank 지분 15%를 인수하였으며, 2012년 12월 Bank of Tokyo Mitsubishi UFJ (BTMU)는 VietinBank 지분 20% 매입을 위해 약 7.4억 달러를 투자함.

3) De Nhat Commercial Joint Stock Bank, Vietnam Tin Nghia Bank, Saigon Commercial Bank

4) Saigon Hanoi Commercial Joint Stock Bank, Hanoi Housing Development Bank

5) HDBank와 Dai A Bank, Sacombank와 Eximbank, The Military Bank와 ABBank 등 3건

- 은행권의 부실자산 관리를 위한 베트남자산운용회사(VAMC)가 2013년 7월 설립되었음. 동 기관은 중앙은행의 감독 하에서 은행의 부실채권 매입, 채무재조정, 담보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
- 다만, 현지 회계기준이 국제기준보다 관대하여 아직 양성화되지 않은 부실채권 규모가 상당하지만 VAMC의 자본금은 5조 동(약 24백만 달러)에 불과하여 VAMC 설립의 효과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음.

### 3. 대외경제

#### □ 제조업 수출 성장세에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 확대 전망

- 2010년 수출은 경기 회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한 반면, 수입 성장률은 19.6%를 기록함에 따라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며, 2011년에는 원유, 섬유 및 식물제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적자가 대폭 축소되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음.
- 2012년에는 전자 및 섬유제품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내수 위축으로 수입수요는 감소하면서 상품수지가 102.4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경상수지 역시 9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커피, 쌀, 원유 등의 수출은 위축되었으나 제조업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2013년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106.6억 달러, 108.5억 달러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sup>f</sup>
경 상 수 지	-6,608	-4,276	236	9,727	10,852
경 상 수 지 / GDP	-6.8	-4.0	0.2	6.6	6.5
상 품 수 지	-7,607	-5,136	-450	10,237	10,661
수 출	57,096	72,237	96,906	114,295	132,727
수 입	64,703	77,373	97,356	104,058	122,066
외 환 보 유 액	16,027	12,054	13,128	23,713	31,726
총 외 채 잔 액	37,300	49,343	57,725	66,325	73,325
총외채잔액/GDP	38.4	46.4	46.7	45.2	44.2
D. S. R.	4.8	3.3	3.7	3.3	3.2

자료: IMF 및 EIU.



## □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시현

- 베트남의 상품수지 적자,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 동화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 사용 등으로 2010년 외환보유액은 전년보다 39억 달러 감소하여 121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나, 2011년에는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되어 13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2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고가 23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31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 거시경제지표 안정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는 점차 증가

- 2009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대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규모가 전년도 96억 달러에서 76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이후 2010년 80억 달러, 2011년 74억 달러로 정체하였음. 그러나 2012년에는 거시경제지표 안정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8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거시경제지표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우대정책 확대로 2013년에는 109억 달러 수준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 양허성 차관 위주의 양호한 외채구조

- 2012년말 기준 외채규모는 663억 달러로 GDP 대비 외채 비중은 45.2%임. 대부분의 외채가 중장기 공적채무로 구성되어 있어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3.3%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
- 다만, 2012년말 기준 단기외채 규모가 2011년 129억 달러에서 22% 증가한 158억 달러를 기록하여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22.4%에서 23.8%로 상승함.
- 2013년 외채규모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73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GDP 대비 외채 비중은 44.2%로 소폭 감소하고 D.S.R. 역시 3.2%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동향

##### □ 베트남 공산당 체제하의 안정적 정권 유지

- 베트남의 정치 체제는 총서기장, 총리,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1년 1월 개최된 제11차 베트남공산당 전당 대회에서 이루어진 지도부 교체 과정에서 노정된 불협화음은 없었음.
  - 총서기는 보수파인 응웬 푸 쯙, 국가주석은 개혁파인 쯔엥 쩌 샹이 새로 선출되었으며, 총리는 개혁파인 응웬 쩌 중이 유임되었음.
- 당내 개혁파와 보수파 간 갈등이 존재하나, 정권 유지에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니며,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하여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경제성장세 둔화로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민주적 절차 도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산당은 최근 유명 반체제 블로거 2명을 체포하는 등 이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2. 사회동향

##### □ 지역 및 계층 간 빈부격차 확대

-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성장의 과실이 외국인 투자지역인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등의 대도시에만 집중됨에 따라 도농간 빈부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베트남의 지니계수 및 소득 상하위 20%의 소득격차는 각각 1999년도에 0.39 및 7.6배에서 2010년 0.43 및 9.2배로 확대되는 등 계층간 빈부격차 역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향후 지역 및 계층간 빈부격차 축소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 부재시 향후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 소수 민족과의 대립

- 베트남은 중앙고원지역에 많은 소수 종족이 산재해 있는데 이들의 생활 여건 향상과 경제여건 개선 조치를 통해 2001년 초에 있었던 대규모 소요 사태 예방에 주력하고 있음.
- 특히 라오스와의 국경 산악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몽족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몽족들이 과거 베트남 전쟁 시 미국을 도와 북베트남과 대립하였고 현재도 체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3. 국제관계

### □ 미국과의 관계 개선

- 베트남전 종전 이후 1995년 7월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었으며, 2000년 클린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2013년 상 주석의 미국 방문 등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
- 2010년 베트남-미국 간 군사정책대화가 최초로 개최되고, 2012년 미국 국방장관이 베트남 방문시 양국 군사협력 강화 의사를 표명하는 등 양국간 군사관계 역시 긴밀해지는 면모를 보이고 있음.
- 다만, 정치범·종교인에 대한 억압, 취약계층의 강제 노역 방관 등 취약한 베트남의 인권상황이 미-베트남 관계 심화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우호적으로 변화

- 베트남은 국경 분쟁 등 역사적으로 중국과 잦은 분쟁을 겪었음. 2009년 2월 중국과 육상 국경 경계선 확정을 마무리하였으나, 해상 국경의 경우 영유권 분쟁<sup>6)</sup>이 진행 중임.
- 중국 해군선박의 베트남 국영석유가스개발공사 시추선 케이블 절단사건(2011년), 분쟁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베트남 어선에 대한 중국의 나포 및 발포 등으로 양국간 갈등이 촉발된 바 있음.

6) Spratly(중국명 남사군도, 베트남명 청사군도) 및 Paracel(중국명 서사군도, 베트남명 황사군도) 도서 및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자체에 대한 영유권(중국 정부의 9개 점선을 연결한 소위 'U자형 수역' 내 영유권) 관련 분쟁

- 2013년 5월 중-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이후, 최근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어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 조짐이 관찰됨.

□ ASEAN 국가와의 지속적인 관계 강화

- 1995년 베트남이 ASEAN의 일곱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2010년 ASEAN 의장국을 수행한 바 있으며, AFTA 발효 준비 및 ASEAN 경제 공동체(AEC) 발족 등 ASEAN의 경제적 통합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등급은 하향세

- Fitch는 2010년 7월 28일 베트남의 대외채무 증가와 금융산업의 취약성으로 경제 및 재정적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베트남의 장기외화표시채권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1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 S&P는 2010년 12월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 상품수지 적자 지속 및 자본유출 심화, 베트남 금융기관의 취약성 등이 이유로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1단계 하향 조정함.
- 다만, 2012년 6월 동사는 베트남 정부의 효과적인 경제정책 수행에 따라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하였음.
- Moody's는 2012년 9월 베트남의 경제성장세 둔화 및 은행산업의 취약성 등을 이유로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B1에서 B2로 1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1	(2013. 1)	C1	(2012. 7)
OECD	5등급	(2013. 6)	5등급	(2012. 3)
S&P	BB-	(2012. 6)	BB-	(2010. 12)
Moody's	B2	(2012. 9)	B1	(2010. 12)
Fitch	B+	(2013. 1)	B+	(2012. 5)

##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제한적 인수 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승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 영국 ECGD: 최고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년 12월 22일 (북한과는 1950년 1월 31일)

□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93년), 무역협정(1993년), 항공협정(1993년), 투자보장협정(1993년), 이중과세방지협약(1994년), 과학기술협정(1995년), 원자력협정(1996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베트남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베트남	2011	2012	2013.6	주요품목
수 출	13,465	15,946	10,044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수 입	5,084	5,719	3,284	원유, 의류, 신발, 목재류
합 계	18,549	21,665	13,328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1년 교역규모는 전년 130억 달러에서 185억 달러까지 확대되어 수교 20년 만에 교역규모가 23배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217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9년 이후 증가추세가 지속됨.
- 2013년 6월 현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4.5% 증가한 100억 달러, 수입은 32.1% 증가한 33억 달러를 기록하여 교역규모가 133억 달러에 달함.
-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4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대 베트남 해외직접 투자는 2013년 3월말 기준 2,773건, 86억 8,968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V. 종합 의견

- 2012년에는 소비심리 악화 및 투자침체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5.1%를 기록하였으며, 수출확대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위축 및 투자활성화 지연으로 2013년 경제성장률은 5.2%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 원자재 및 소비재 가격 안정으로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 18.7%에서 9.1%로 하락하였음. 2013년 상반기 공공요금의 인상되었지만 국제원자재와 식료품 가격 안정, 소비심리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9%로 낮아질 전망이다.
- 한편,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확대 등으로 2013년 베트남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2012년 5.2%보다 다소 감소한 4.0%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2년 상품수지가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2013년에도 전자 및 섬유제품 수출 확대에 상품수지 흑자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 베트남 공산당 체제 하의 안정적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해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말 기준 대외채무비중이 GDP 대비 45.2%이고, 양허성 차관 위주의 양호한 외채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3.3%에 불과하여 대외지급능력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책임조사역 임영석 (☎02-3779-5704)  
E-mail: yslim@koreaexim.go.kr